

투데이 칼럼

북한 사회와 문화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 집권 12년 차를 맞았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에 정주년을 맞는 행사들을 언급하며 성과를 요구했다.

2023년은 공화국창건 75돌과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돌이 되는 중요한 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고한 대로 인민군 창건 75주년인 2월 8일과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코로나 발생 3년 반 만에 고강도 방역 체제도 해제했다. 북한 전역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개학식을 열었고 이후 거리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포착됐다. 굳게 걸어 잠갔던 국경도 어느 정도 개방했다.

5년 만에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10위라는 성적을 거뒀다. 북한 사회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11월 치러진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선 후보 경선과 유세도 펼쳐졌고 반대 투표함도 등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주인공으로 한 첫 소설이 2014년도에 등장한 이래 김정은 체제가 수령 체제로 완전히 들어갔다. 북한 TV에서 주목 받은 또 다른 인물들이 있다.

공식석상에 처음 등장한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여러 차례 모습을



정복규
논설위원

보였다. 열병식이나 군부대 시찰에도 동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한편 경제시렁담으로 불리던 김덕훈 내각 총리는 생사를 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안남도 안석 간석지 피해와 관련하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다. 그런데 북한 농사가 지난해 보기 드문 풍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다시 존 재감을 드러냈다.

김주애는 이제 공식 석상에 나온 지 1년 남짓 됐다.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해석이 분분하다. 군사 분야에서 시작해서 각 산업 현장 또 명절 행사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

을 하지는 못했다. 이를 두고 후계 문제에 대한 논의도 많다. 다만 아직까지 정보가 좀 미약하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북한의 후계 구도를 결정하는 것은 당원에 입당하면서부터다. 당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를 하

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 볼 요는 있다. 그런 걸 논하기에는 시 가상좌다. 다만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TV나 신문 통해서 간부들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들이 서슴없이 보도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많은 지지를 얻게 되는 그런 요소일 수 있다.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교양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대타로서의 희망이라든가 출구 전략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한 분보기로서 중간 간부들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들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3년 남북 관계는 극도로 경색됐다. 북한의 태도는 한층 거칠어졌고 비판 수위도 갈수록 높아졌다.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던 10월 1일 조선중앙TV는 우리나라를 그동안 주로 사용해 왔던 남조선이란 말 대신 괴뢰집으로 표현했

다. 경찰 위성을 발사하고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시켰다.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작개심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했다. 요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우려한다.

외교적인 언어로서 괴뢰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휘 선택이다. 북한의 모든 언론들은 관영 매체다. 북한 주민들에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강경하게 속 시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부적인 결집을 추구하는 것이다.

전략적 의도도 포함돼 있다. 북한 사회가 폐쇄적인 만큼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싶을 때 아무래도 북한 매체를 통한 수밖에 없다. 북한 매체들은 기관지 역할

을 하고 있다. 노동신문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전국 일간지이지만 이는 노동당 당보다. 언론이 가져야 할 권력이라든가 사회적 비판 기능이라든가 대인을 제출하는 기능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대외를 의식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내 북한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와 정책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사설

의료 비상 대응 방안

요즘 의사 집단행동과 정부 대처 양상을 두고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양쪽 모두 국민들의 건강과 안위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과거 2000년과 2020년 당시 패턴과 똑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2000년 의약분업 때, 그리고 2020년 단체행동 때와 비교하면서 나온 지적이다.

관계자들도 너무나 똑같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과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하는 것부터 같다. 그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 있지 않겠다라며 집단행동을 선언한다.

아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대 정일 증원과 함께 반드시 고쳐야 될 것은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반드시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

으로 보건의료 정책은 제대로 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공급한 것 중에 하나는 지난번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입장이다.

그 당시 때는 400명 증원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2000명이다. 정부가 달라졌다고 해도 너무 차이가 크다. 그때는 증원도 증원이지만 공공의대 문제 때문에 반발이 훨씬 더 컸다.

그리고 정부가 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당시는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워낙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의료진이 크게 부족

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보니까 정부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좀 다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하루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다.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지난해 말 4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치하지는 이른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지는 제안까지 나왔다.

일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무지본 깎 투기가 극성을 부렸던 2022년 말 이후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만3천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실질적인 회복은 더디지만 하다. 온전히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들도 넘어서 할 산이 너무 많다. 채권 회수율은 갈수록 낮아져 2020년 절반에서 지난해 10%대까지 급락했다.

악성 임대인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연구원은 전세 보증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금융 기

관이나 신탁사 등 제삼자가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대신 관리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제도'와 비슷하다.

그런데 시중의 관행은 그렇지 않다. 이사하는 날 집주인이 그 돈을 바로 받아서 자기도 써야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또는 잔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실제 제도 도입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전세를 놓는 사람들은 목돈이 필요해서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다.

민약에 신탁사나 은행에 전세 보증금을 예치하게 되면 내 집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 임대인을 중심으로 전세 시장을 재편하는 등 일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세계 물의 날, 조개 채집하는 캄보디아 사람들



지난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호숫가에서 주민들이 조개를 채집하고 있다. 3월 22일은 수질 오염과 식수 부족에 따른 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인도, 세계 물의 날 맞아 무료 식수 나눔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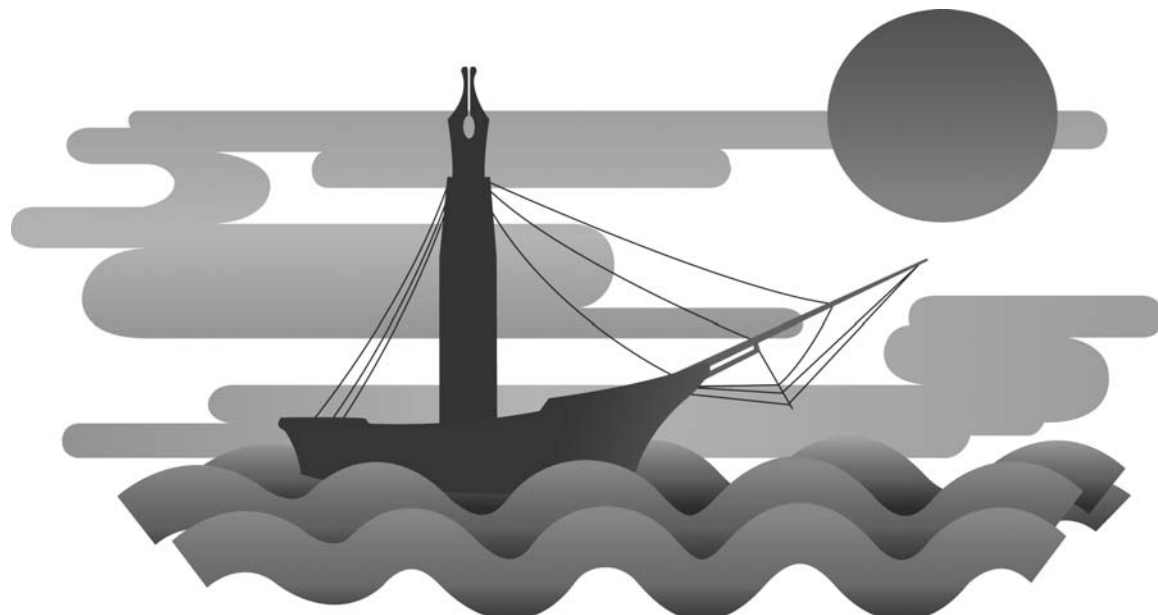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 하이데라바드의 한 버스 정류소 옆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행인들에게 마실 물을 나눠주고 있다. 22일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인도의 많은 지역에서 통근자들에게 무료 식수를 제공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